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환율은 직전영업일 대비 0.80원 오른 1,066.20원으로 마감
------	--------------------------------------

이날 환율은 FOMC앞둔 롱포지션에 직전영업일 대비 0.80원 오른 1,066.20원으로 거래를 마감하였다.

지난 밤 NDF 시장에서의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을 반영하여 1,069.50원에 개장한 후 숏커버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채권 현물매도로 인한 롱포지션에 오랜만에 레인지 상단이 뚫리면서 달러화가 1,070원대까지 레벨을 높였다. 하지만 오후들어 코스피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외국인 주식순매수가 유입되면서 달러화는 레벨을 낮추었다. 또한 연일 지속되는 1,060원대의 환율로 1,070원대에서는 고점 인식 매도 물량 및 롱포지션 정리 또한 이어져 달러화가 1,066원대로 밀려 1,066.2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마감시점의 원-엔 재정환율은 1.80원 오른 1,006.66원에 거래되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069.50	1071.70	1065.70	1066.20	1069.6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01.62	1011.63	1001.13	1004.89	
금일 전망	FOMC 앞둔 롱플레이 우위 흐름으로 1,070원대 부근 등락 예상				

금일환율은 FOMC 앞둔 롱플레이 우위 흐름으로 1,070원대 부근 등락 예상된다.

전일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은 전영업일 종가 보다 4.25원 오른(스왑포인트 고려) 1,069.45원에 최종호가되었다.

금일 환율은 미 FOMC 금리 인상과 연 4회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롱플레이로 1,070원대까지 레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교체설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져 이또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일 지속되었던 1,060원대 레벨로 인해 1,070원대로 상승시 네고 물량 출회 가능성 높아 상승폭 제한 될 가능성 높다. 또한 주말 발표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검토 또한 달러 매도 재료로 인식되어 상승 제한 할 가능성이 높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062.60 ~ 1078.6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637.84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25원 ↑ ■ 美 다우지수 : 24946.51, +72.85p(+0.2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8.2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6023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